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을 소개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이 축복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자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아침 예배와 중보기도회, 그리고 저녁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교회가 예배와 말씀읽기를 통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8

1월 5일 공과 - 예수 닳기를

1월 12일 공과 -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1월 19일 공과 - 예수님과 부자청년

1월 26일 공과 - 불신앙, 제자들의 배교

선교사 열전 ·136

게일 선교사(James S. Gale 1863~1937)

(한국 체류 1888~19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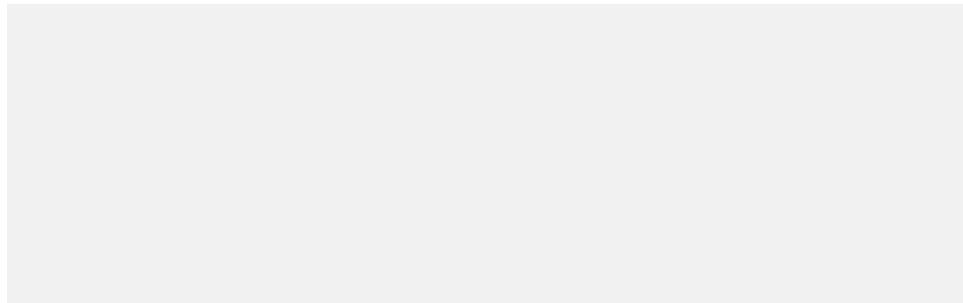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마태복음 1:18-25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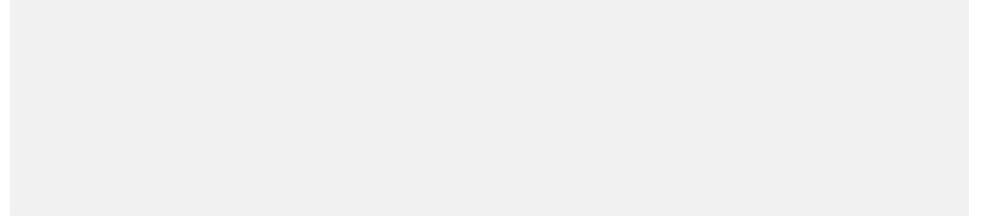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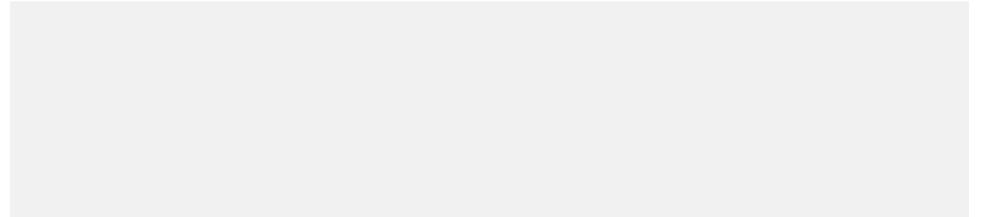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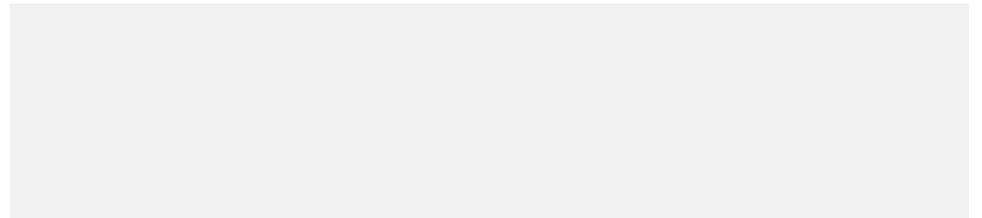
에스라 1장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8-25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18-20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그의 약혼자이자 남편인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의 법적 부친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21-25절)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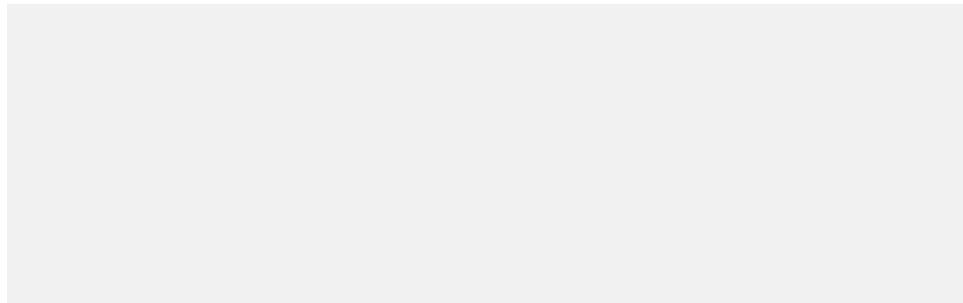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마태복음 2:4-11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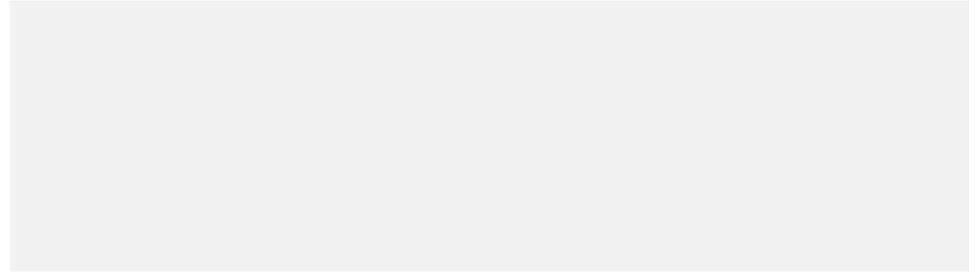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 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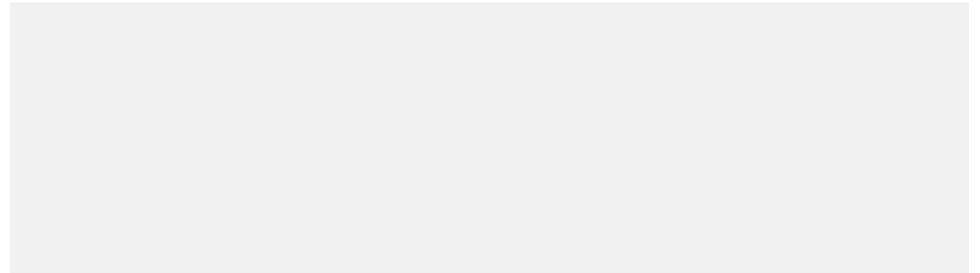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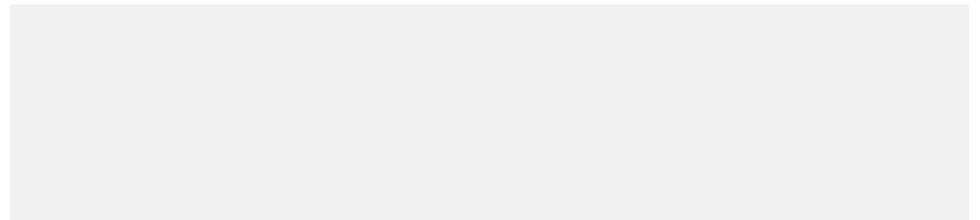
7 야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에스라 2장**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사도행전 2장**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2:4-11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4-8절)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실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헤롯 왕은 왕권의 위협을 느껴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동방박사를 이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9-11절)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제사장을, 몰약은 선지자와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을 의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펼쳐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자기 죄로 죽어갈 수 밖에 없었던 전 인류의 희망이자 축복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3:11-17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예수님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요한에게 나아가시는 예수님

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

16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스라 3장

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사도행전 3장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13-17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예수님(11-12절)

침례요한은 물로써 회개의 침례를 행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에게 나아가시는 예수님(13-15절)

원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요한이 침례를 받아야 마땅하나 주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주어 질서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16-17절)

요단 강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시공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4:1-10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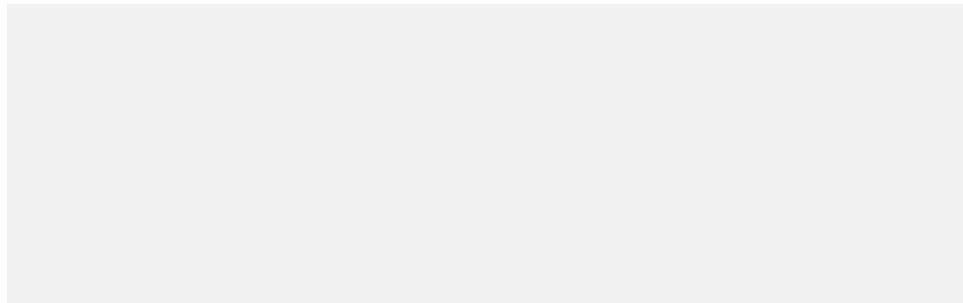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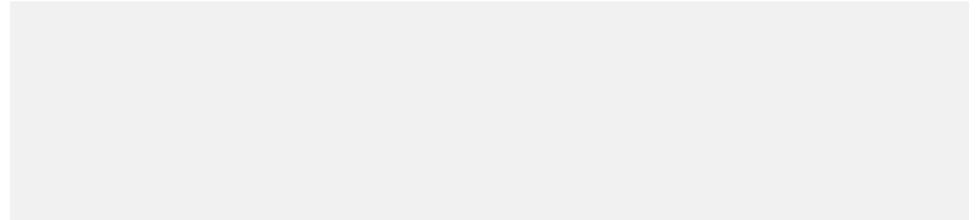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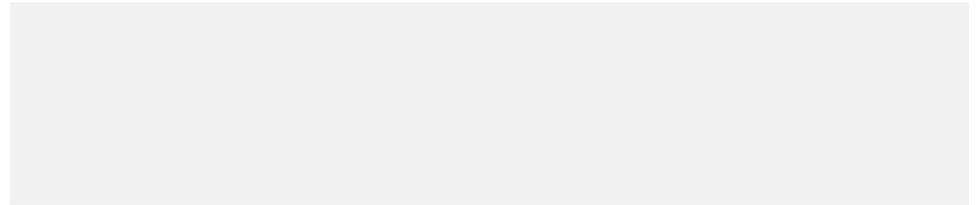
창세기 4장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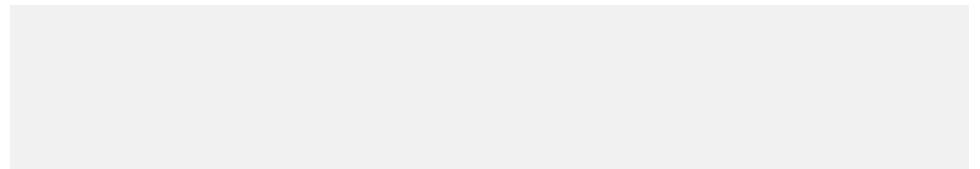
에스라 4장

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도행전 4장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4:1-10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1-4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5-7절)

6절에서 마귀의 유혹은 시편 91:11,12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신명기 6:16¹⁾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8-10절)

마귀는 자신에게 앞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는 신명기 6:13²⁾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좇아 살아가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1) 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2) 13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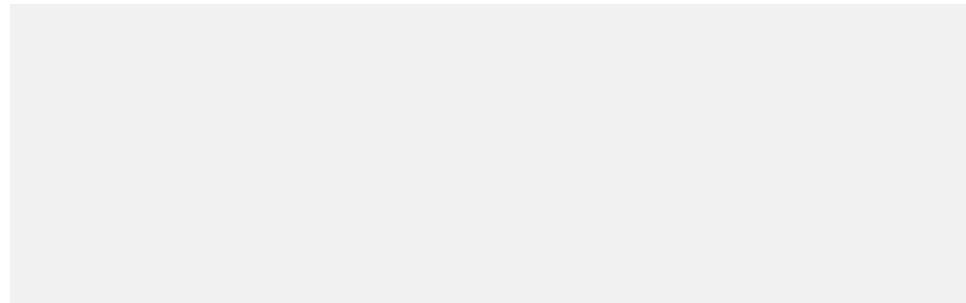
마태복음 5:1-12 제자의 복된 삶

무리와 제자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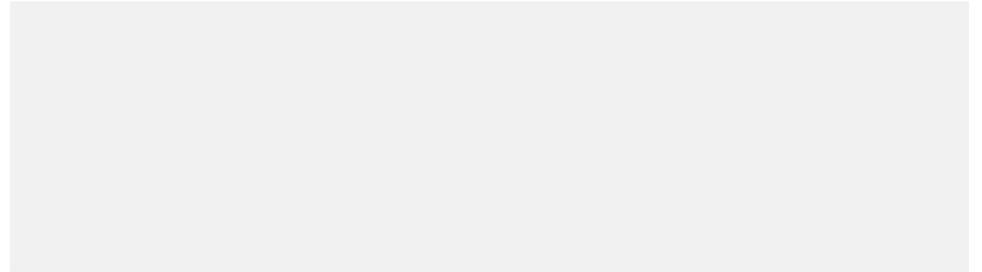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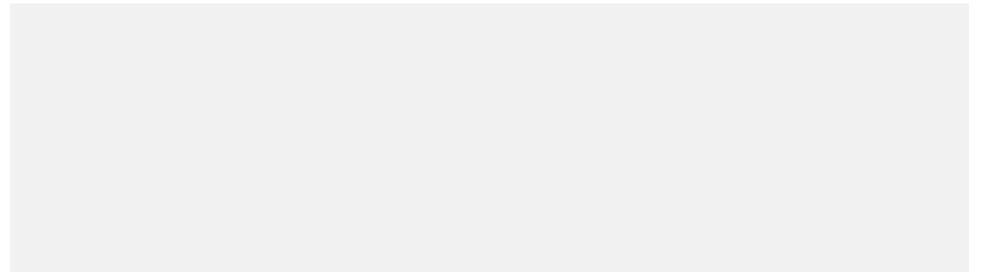
창세기 5장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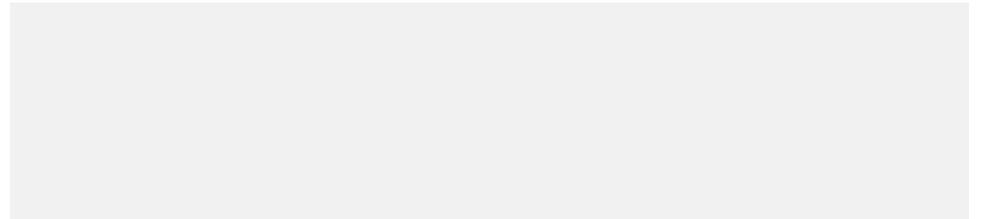
에스라 5장

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사도행전 5장

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5:1-12

제자의 복된 삶

무리와 제자(1-2절)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안에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3-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고, 주리고 목마르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으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우리

우리가 아닌 제자로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팔복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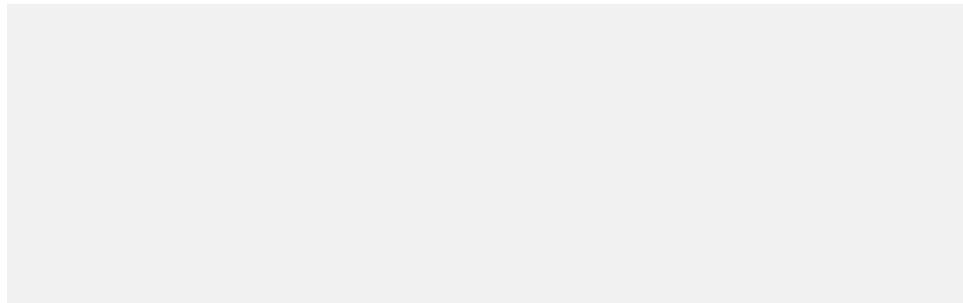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마태복음 6:5-13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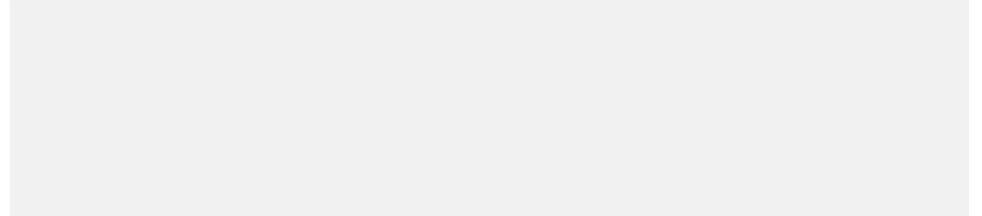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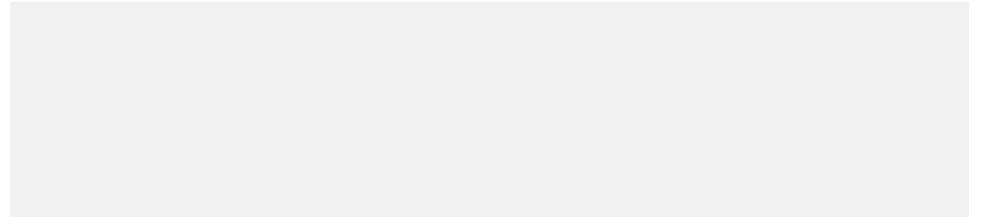
창세기 6장

5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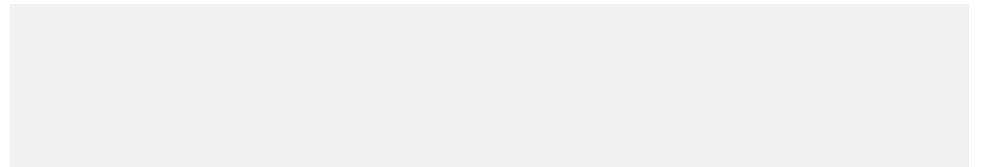
에스라 6장

22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사도행전 6장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태복음 6:5-13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5-8절)

당시 유대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록을 뽐내듯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를 위해 자신의 위치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9-13절)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기도를 꼬집으신 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상정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7:1-12 하나님께 속한 삶

비판하지 말라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7장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에스라 7장

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야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사도행전 7장

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태복음 7:1-12

하나님께 속한 삶

비판하지 말라(1-6절)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불리우는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5장의 팔복을 시작으로 6장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 대단한 가르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7-12절)

이어지는 가르침은 하나님께 구하여 공급을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8:5-15 믿음을 보시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8장

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에스라 8장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사도행전 8장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마태복음 8:5-15

믿음을 보시다

예수님께 나아온 백부장(5-7절)

백부장은 로마에 속한 군인 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유대땅 목수의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은 그리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이 아닌 하인의 병으로 인하여 찾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8-9절)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함께 가신다는 말씀에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보다 낮게 여김을 넘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작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에 앞을 자와 쫓겨나게 될 자(10-12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한 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천국에 앞을 자와 쫓겨나게 될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있게 되지만 유대인이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울며 쫓겨나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9:27-38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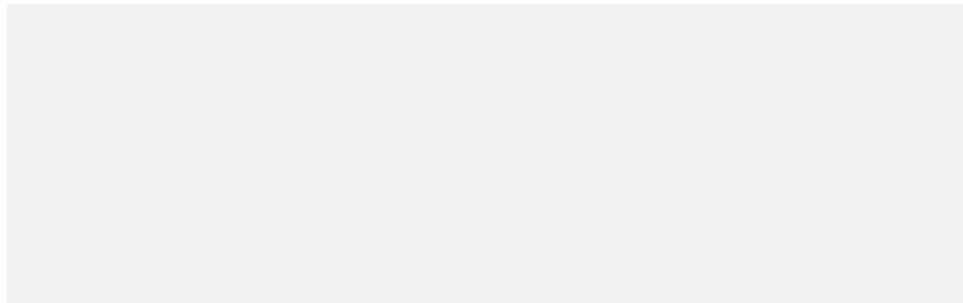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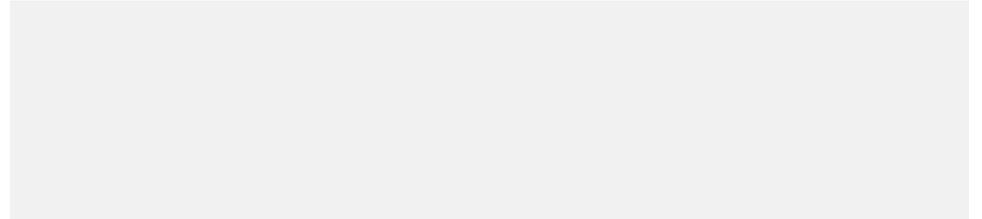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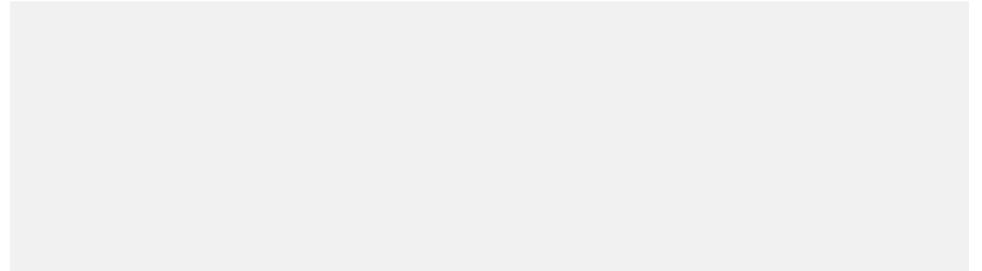
창세기9장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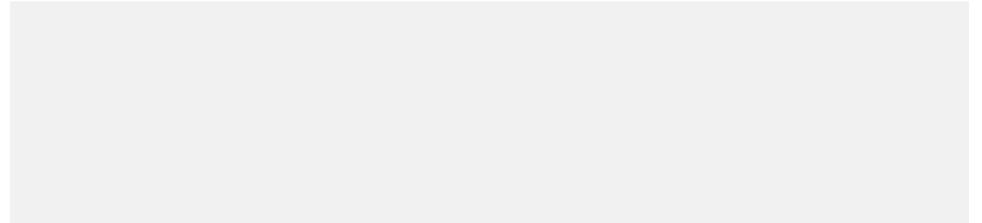
에스라9장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사도행전9장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마태복음 9:27-38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27-31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의 근원이십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의 외침에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가 무엇이든 할수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32-34절)

예수님의 기적은 특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주님은 모든 종류의 병들을,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35-38절)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로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일과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 3가지의 모든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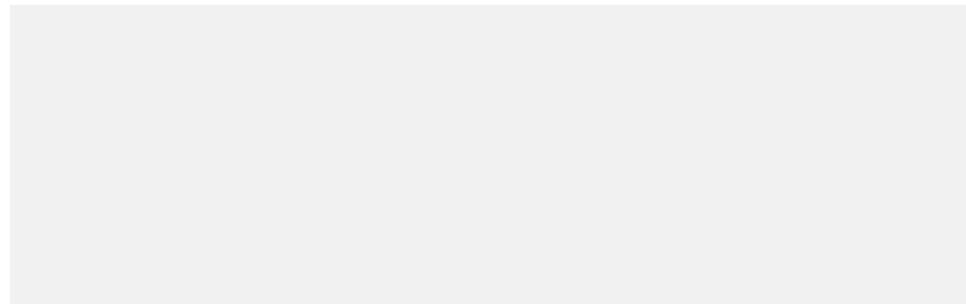
마태복음 10:1-15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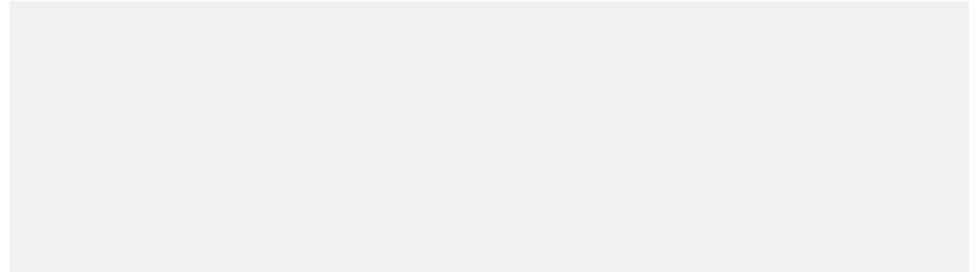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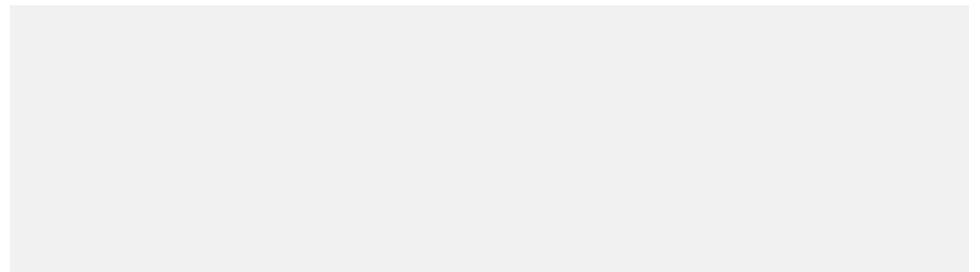
창세기 11장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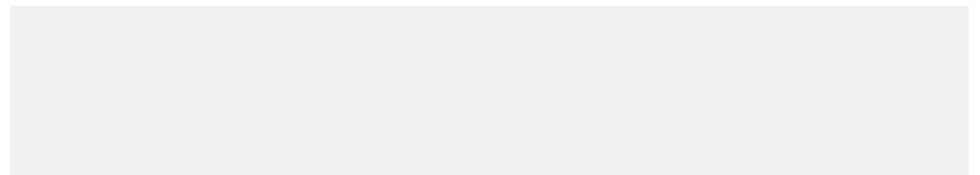
에스라 10장

3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22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읽기 가이드

마태복음 10:1-15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1-8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한 세우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낼 수 있도록,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고자 함이며 천국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자세(9-15절)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여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용할 양식도 집주인의 허락함이 있을 때 먹을 수 있으며 자신들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제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집주인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 집에 평안을 빌 수 있게 해 줍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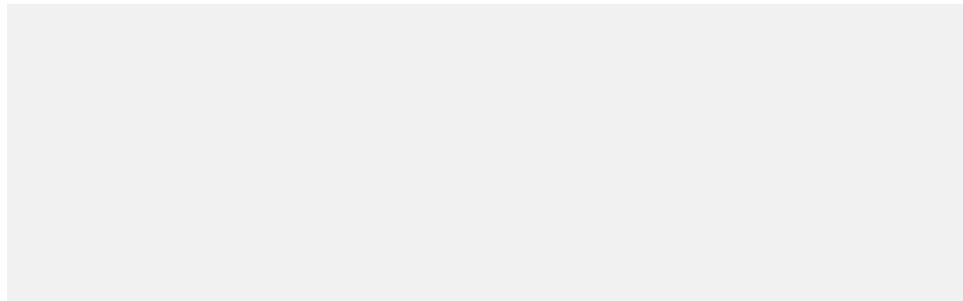
마태복음 11:1-15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침례요한의 모습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침례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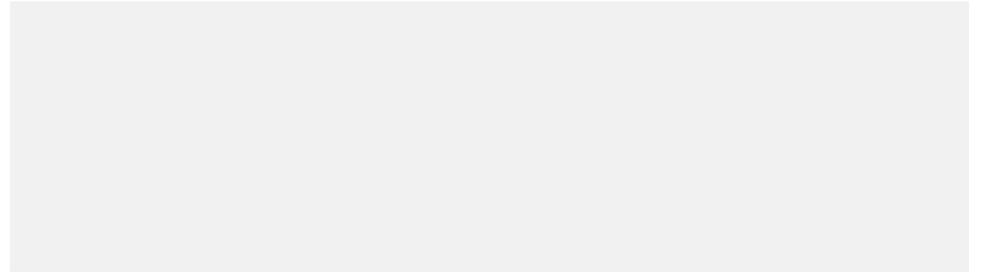
12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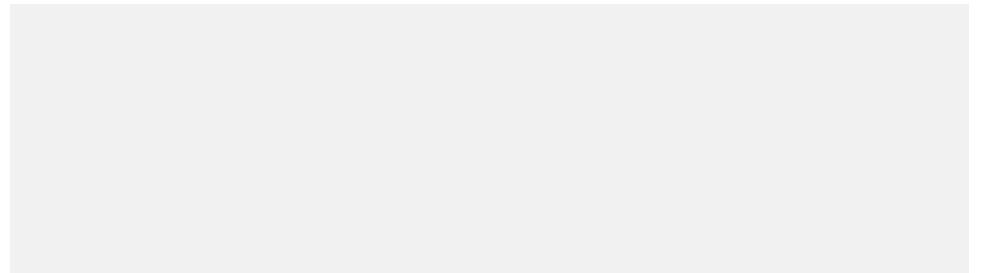
창세기12장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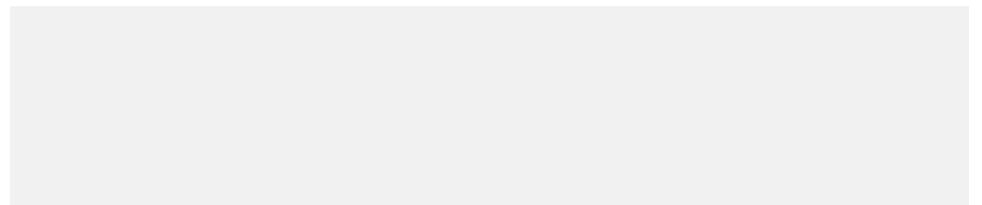
느헤미야 1장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마태복음 11:1-15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침례요한의 모습(1-11절)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침례요한이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위해 일하는 자인지 밝히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였던 침례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통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언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며 침례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였음을 다시 알려 줍니다. 비록 침례요한의 행색은 볼품이 없었으나 그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가 진짜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모습 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였음을 칭찬합니다. 그 시대에 침례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을 택하신 것은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침례요한(12-15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처럼 침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오게된 선지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또한 예수님도 그에게 침례를 받으므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모습과 함께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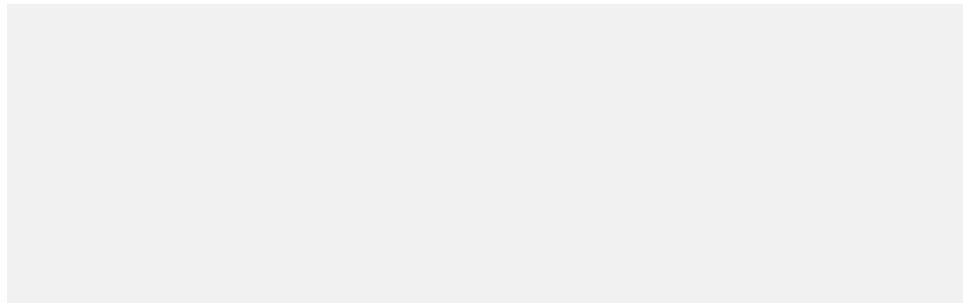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마태복음 12:22-32 |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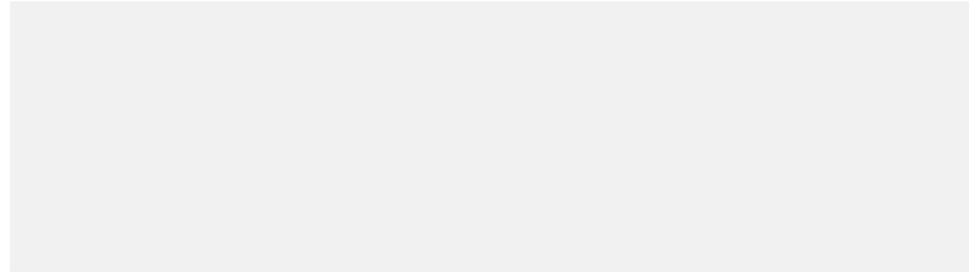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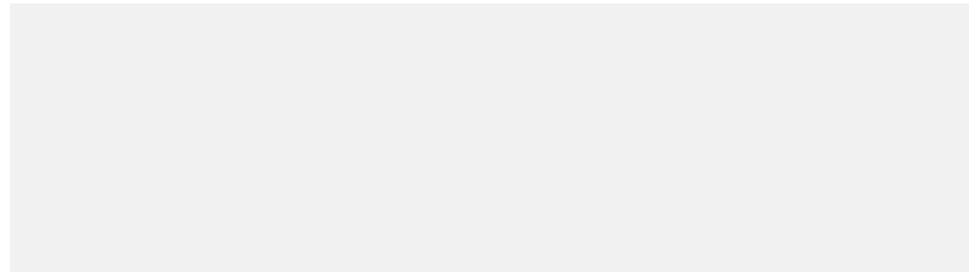
창세기13장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벳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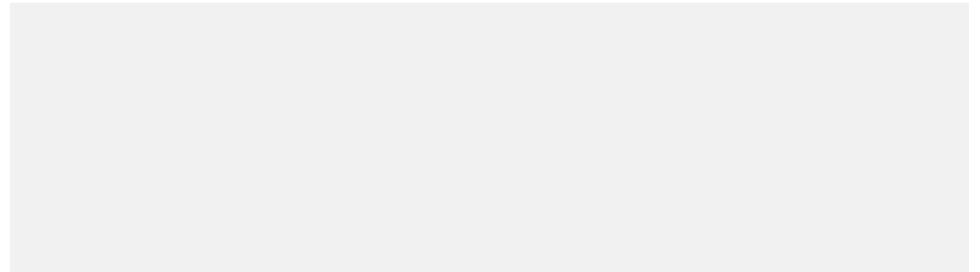
느헤미야 2장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도행전 12장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읽기 가이드

마태복음 12:22-32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22-29절)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귀신은 악한 영이며 또한 그 귀신을 통해 눈도 멀게 되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는 앞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는 전인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줍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30-32절)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죄와 악한 비방에 관련된 죄들은 모두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두가지가 성령을 훼방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들을 훼방하는 것과 모독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고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3:1-14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짝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14장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느헤미야 3장

1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사도행전 13장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마태복음 13:1-14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가지 밭의 비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실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밭에 뿌려지는 씨는 예수님의 말씀 즉, 천국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땅에 즉 경작된 흙 속에 떨어지지 않고 굳은 땅 위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의(악한 자=사탄) 먹이가 되기 쉽고 따라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는 흙이 얇기 때문에 이 씨는 금방 썩어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고, 땅의 습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타고 말라죽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씨는 가시 떨기 가운데 뿌려집니다. 씨는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지만 가시 떨기가 땅의 기운을 빼앗아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에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 씨는 다양한 양의 결실을 합니다. 최선의 경우에 백 배, 또는 육십배 또는 삼십배 결실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말씀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좌우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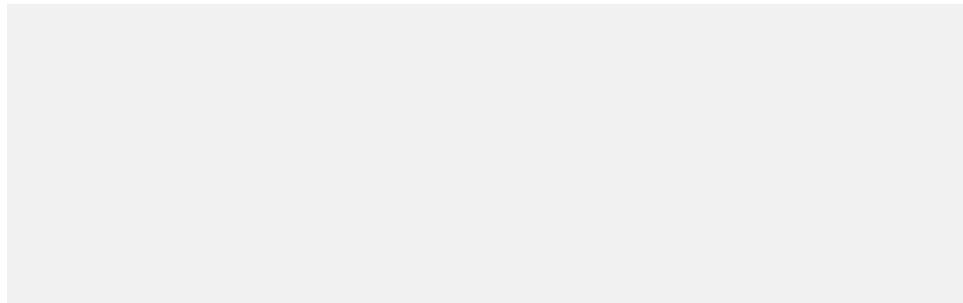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4:13-21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오천 명을 먹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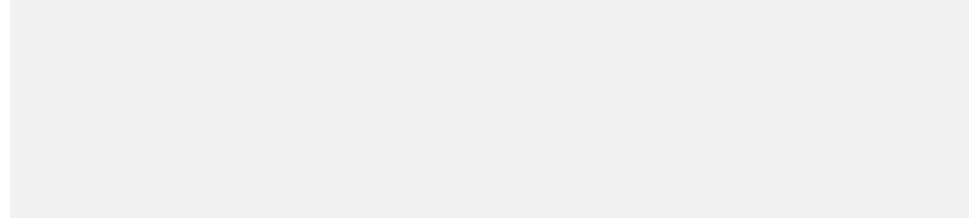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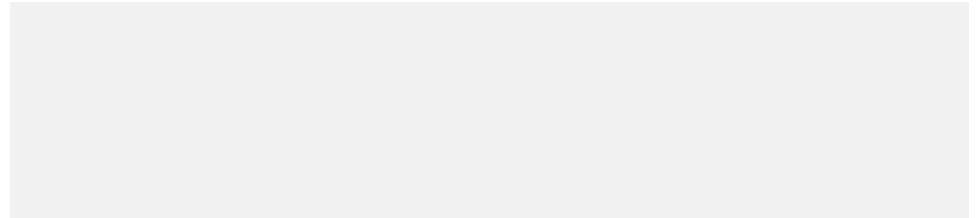
창세기 15장

6 아브람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야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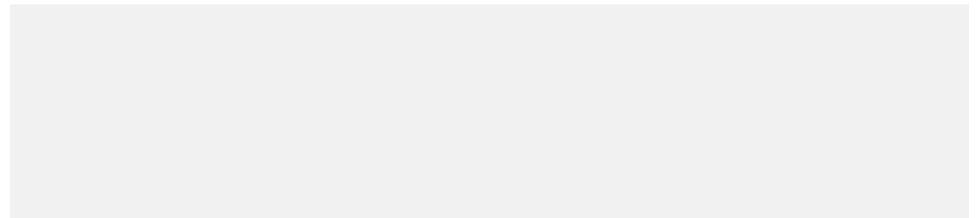
느헤미야 4장

5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사도행전 14장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마태복음 14:13-21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오천 명을 먹이시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 예수님은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날이 저물어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마을이나 가까운 지역에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큰 무리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하신 후 무리에게 잔디에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단어는 ‘비스듬히 기대다’는 의미로 당시에 사람들이 만찬을 가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조각을 무리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5:21-31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16장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느헤미야 5장

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도행전 15장

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마태복음 15:21-31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성경에서 바알신을 숭배하거나 권력과 부요함을 붙잡는 교만으로 인해 여러 번 비판 받았던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침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던 (마7:7-8) 예수님께서서 그녀의 비명에는 고개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를 보내달라고 청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으니, 이것은 의도적인 외면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외면에 더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을 크게 낙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녀의 믿음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 딸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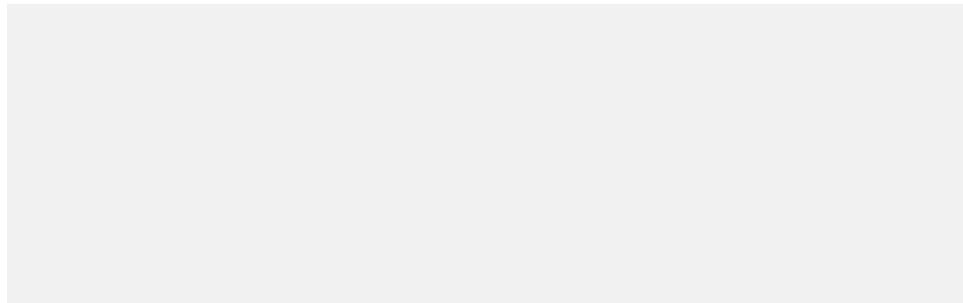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6:13-20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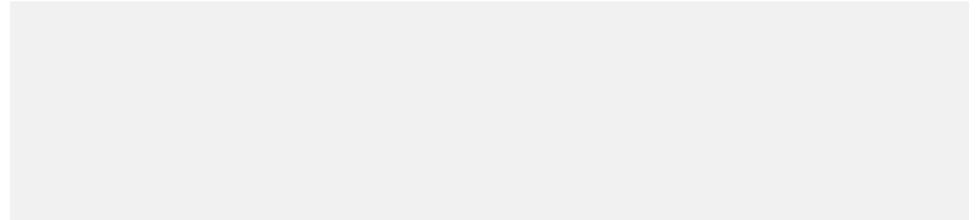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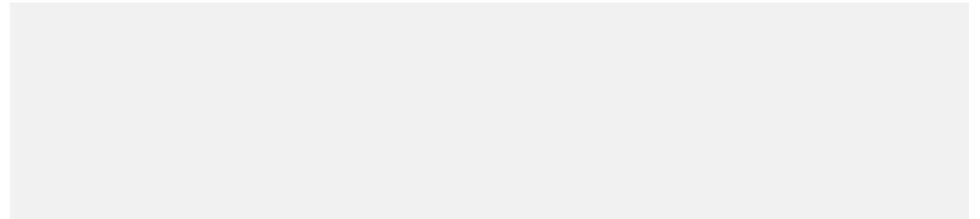
창세기 17장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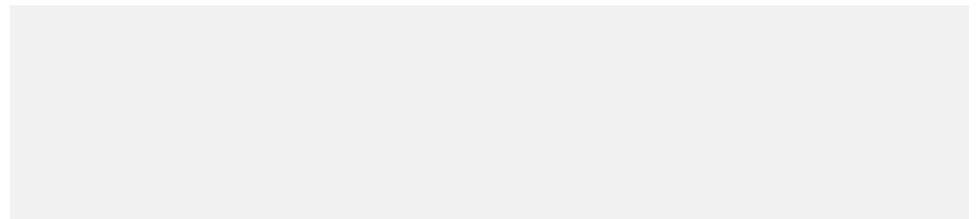
느헤미야 6장

15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사도행전 16장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태복음 16:13-20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로 부터 대답을 들으신 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들은 대로 주님에 대해 말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생각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반응은 제자들의 대답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대답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확고히 깨닫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는 위대한 예언자 이상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성령님을 통해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밀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확고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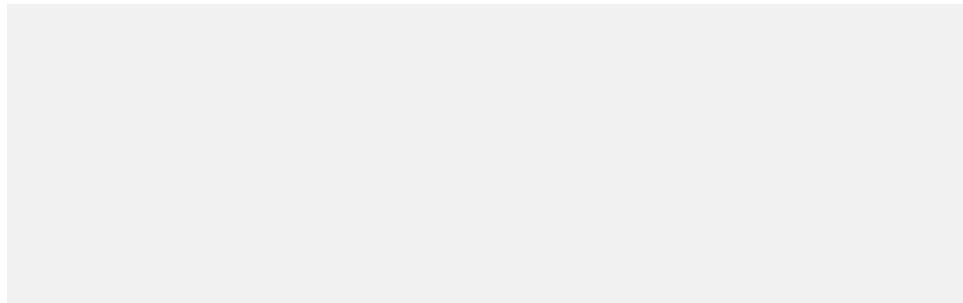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7:1-11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

십자가 죽으심에 관하여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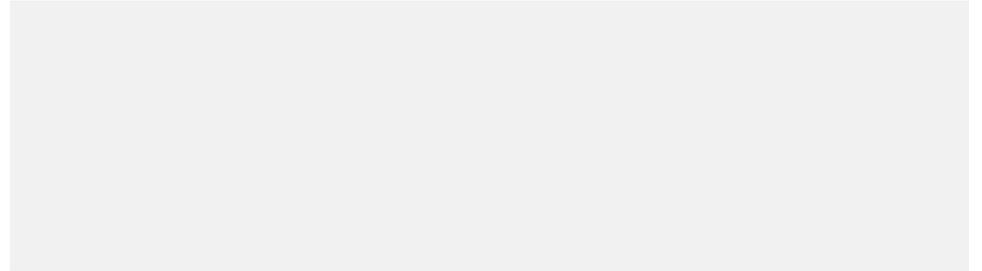
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 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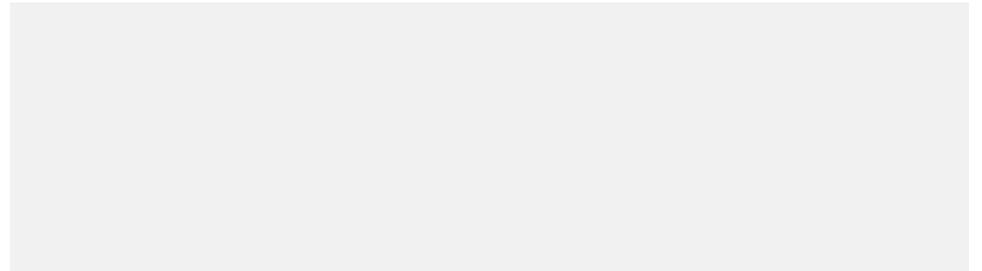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1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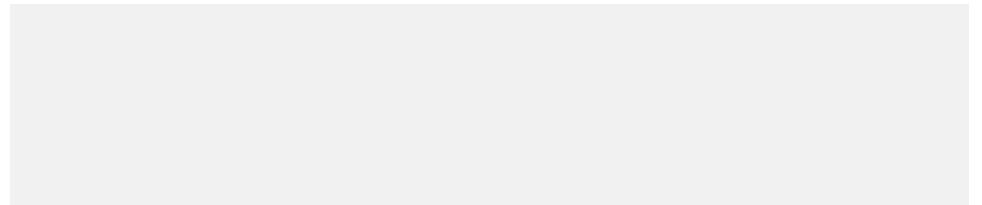
14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느헤미야 7장**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사도행전 17장**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마태복음 17:1-13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

십자가 죽으심에 관하여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 (1-8절)

예수님께서서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9-11절)

모세와 엘리야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에게도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공생애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그 뜻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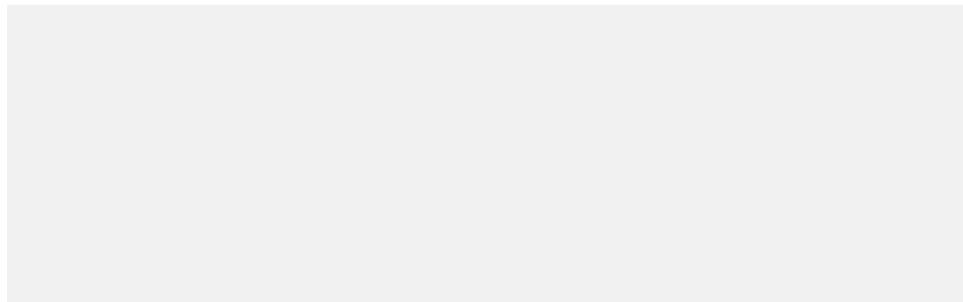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8:1-11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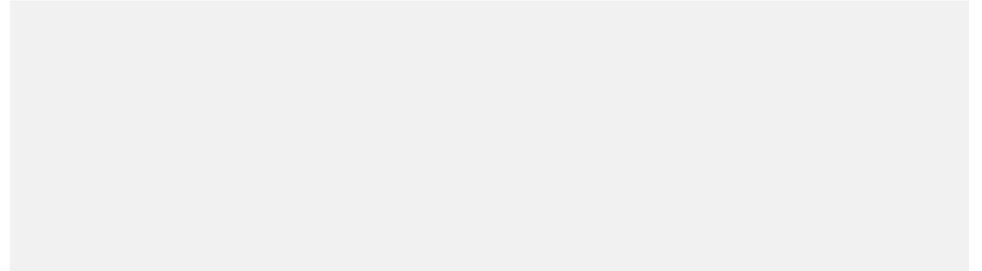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없음)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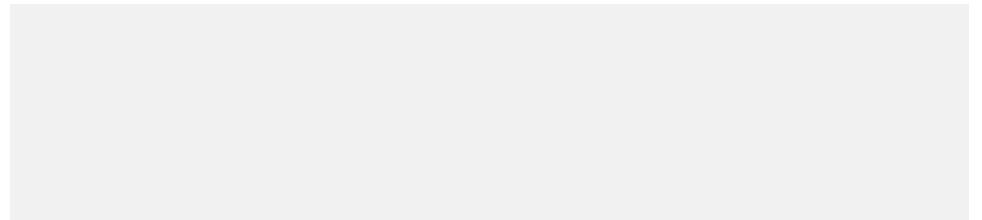
창세기 19장

29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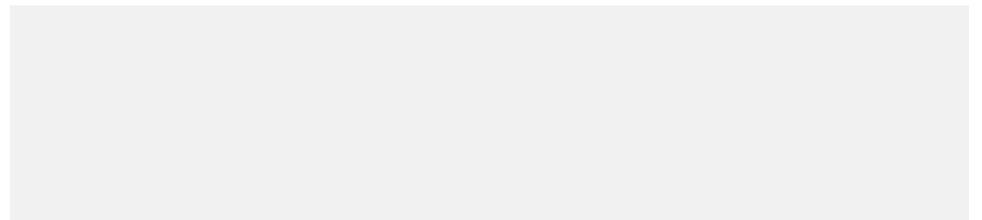
느헤미야 8장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도행전 18장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8:1-11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음(1-11절)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는 질문에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워 대답을 해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엄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업신여겨 실족하게 할 경우에는 큰 화가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순수하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천국백성의 삶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더욱 존귀히 여기고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천국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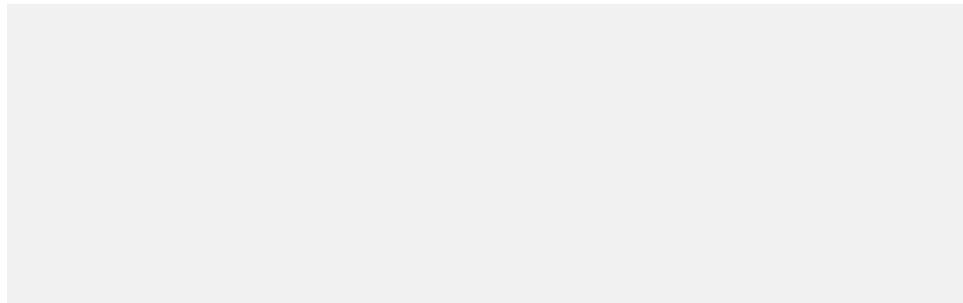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19:16-26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재물이 많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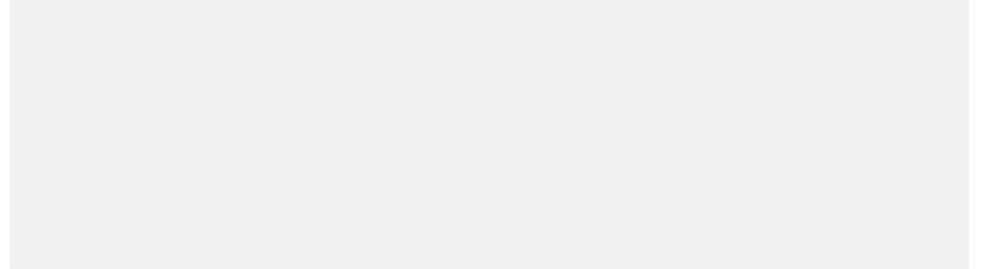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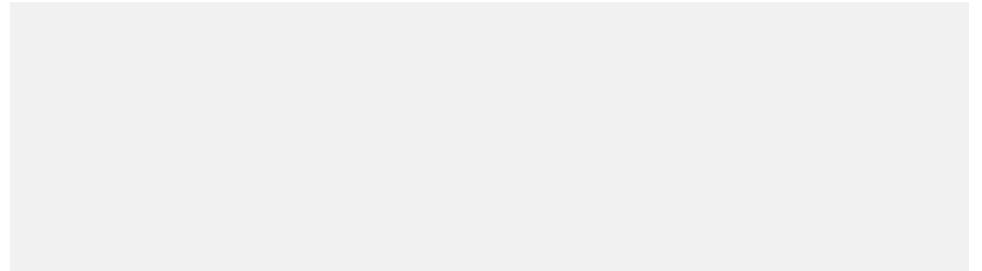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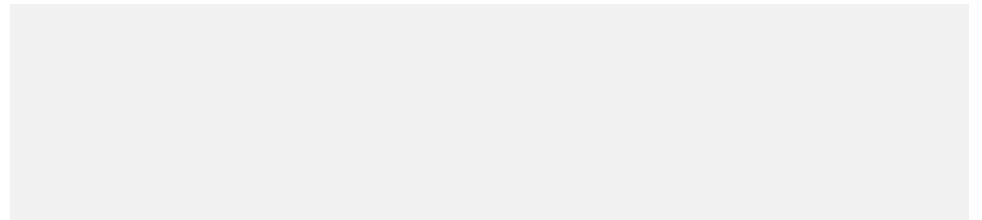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달으셨음이라

**느헤미야 9장**

6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사도행전 19장**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마태복음 19:16-26

재물이 많은 청년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16-26절)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물러갔다고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은혜로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대로 사용한다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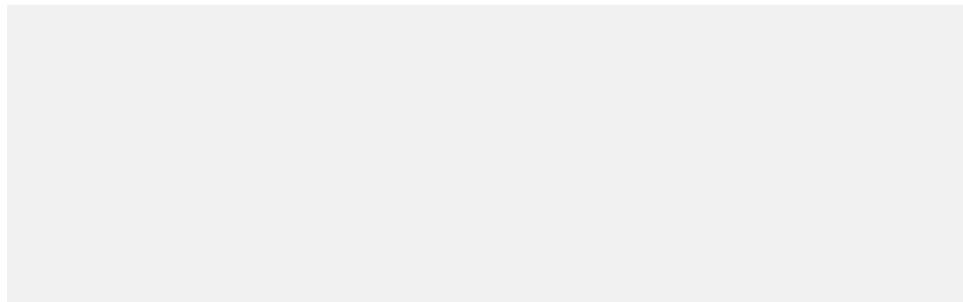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0:25-34 치료받기 위한 간절한 소원의 믿음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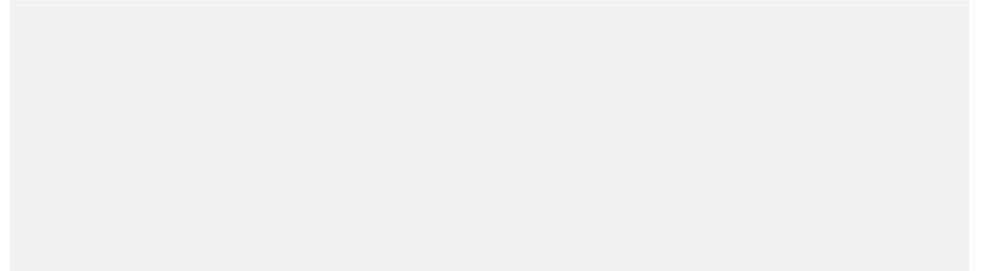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9**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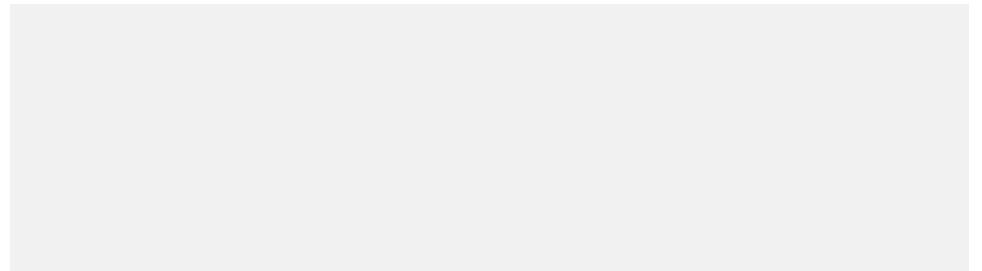
창세기 21장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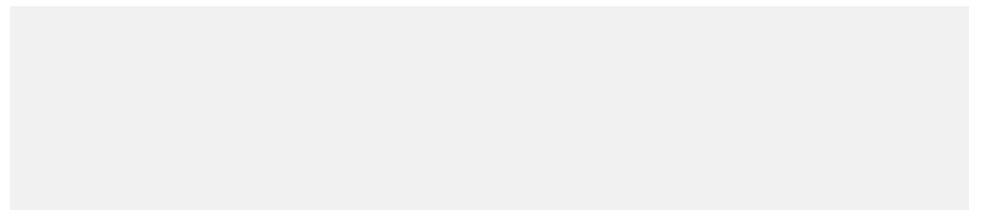
느헤미야 10장

10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0:25-34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심

치료받기 위한 간절한 소원의 믿음(29-34절)

주님께서서는 간절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소극적 믿음이 아니라, 간절하면서도 불퇴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서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모른 채하시며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들을 불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고, 그들은 자신의 눈이 뜨게 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불퇴전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맹인 두 명의 믿음을 본보기로 가르쳐주셨습니다. 믿음은 간절하고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절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마침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믿음

믿음은 말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믿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믿음을 죽게 만듭니다.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 치료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의 선포를 통해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긍정적인 말로부터 출발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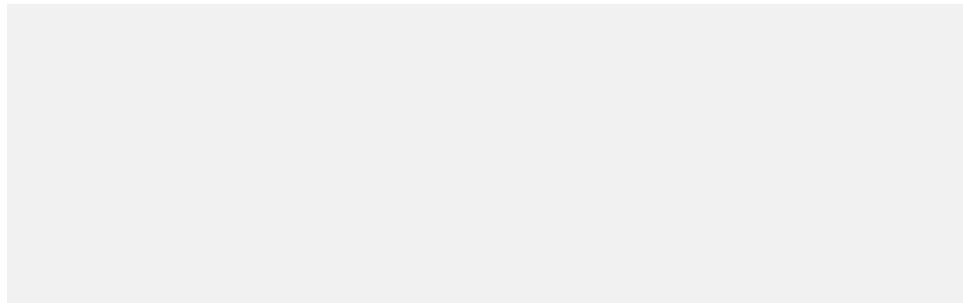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마태복음 21:1-13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시다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퍼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퍼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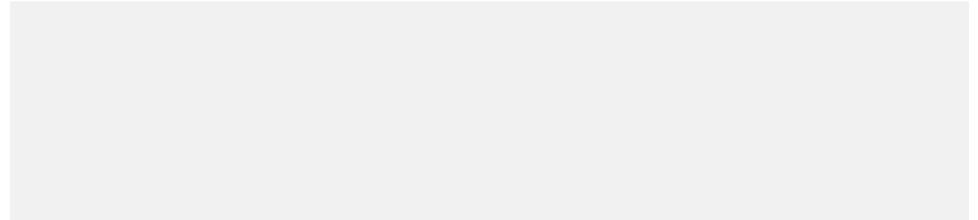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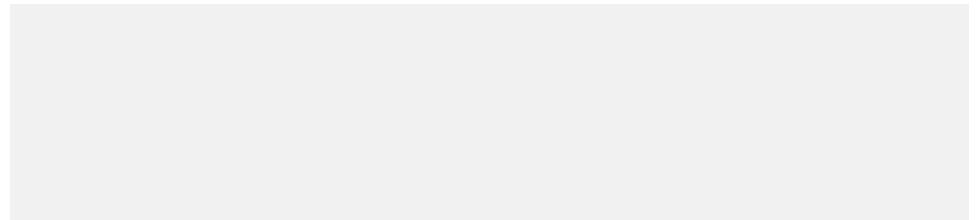
창세기 22장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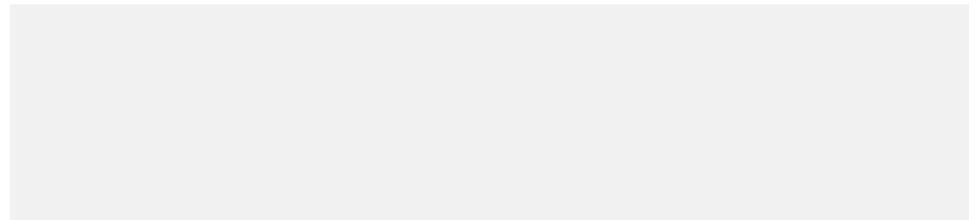
느헤미야 11장

22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맛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사도행전 21장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태복음21:1-13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시다(1-11절)

예수님께서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 세상의 보편적 이치와는 전혀 다른 진리의 역설입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12-13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사람의 헛된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당시 헤롯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예고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요2:21).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힘써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2:34-46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3장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느헤미야 12장

43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2:34-46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34-40절)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묻는 율법교사의 말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5의 '쉐마 이스라엘'을 인용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와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성경의 본 뜻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구약성경의 율법 즉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요약한 10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의 1~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5~10계명은 이웃사랑을 의미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41~46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불쌍한 모든 이웃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그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 된 우리 모두에게 사랑 그 자체였던 당신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 아낌없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의 삶을 깊이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3:1-15 외식(위선)하는 겹테기 신앙에 화가 있으리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위선)에 대한 책망

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6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가 있으리다

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 (없음)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4장

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3장

14 내 하나님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23장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1-15

외식(위선)하는
껍데기 신앙에
화 있으리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위선)에 대한 책망(1-7절)

예수님은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을 결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우되,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를 좋아하고 랍비(선생)라 칭함 받기 좋아하여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8-12절)

이 땅에 참된 랍비(선생)이자 지도자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생이라 칭하는 그들을 엄히 책망하시며, 누구든지 (그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자야말로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으리로다!(13-15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 7번의 화 외침(화가 있을진저)을 선언하십니다. 외식하며 위선에 빠진 껍데기 신앙의 소유자인 눈 먼 인도자인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화)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며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힘써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날마다 회개하기 위해, 유일한 지도자이자 선생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4:1-14 종말의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영적 긴장시대

옛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심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종말의 징조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5장

23 야베허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스더 1장

19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사도행전 24장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4:1-14

종말의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영적 긴장시대

옛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심(1-2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의 훼파로 성전 그 자체와 동일시되던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은 결국 완전한 멸망(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혈통적 유대인, 옛 성전,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시대는 구원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참 이스라엘(영적 유대인), 새 성전, 율법의 완성(성취)를 의미하는 신약시대(새 언약 시대) 즉 '종말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3-14절)

종말의 시대에는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 여러 환난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많이 나타나는데,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은 일차적으로 로마제국에 의한 A.D 70년 '유대민족의 멸망'(15절 이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징조는 '악한 세상(사탄의 나라)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드러냅니다(13절, 전디는 자의 구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징조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영적 긴장시대, 즉 종말의 시대(신약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5:14-28 달란트의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6장

24 그 밤에 야베허게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에스더 2장

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사도행전 25장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마태복음 25:14-28

달란트의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14-28절)

첫 번째 종은 돈을 자신이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두 배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도 돈을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은 그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종도 그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불충실함으로 인해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습니다(14절). 이것은 반드시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산할 날을 위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들은 깨어 있어야 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 다섯 달란트를 더 늘렸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재산을 갑절로 불렸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건 두 달란트를 받았건, 그들은 액수에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임을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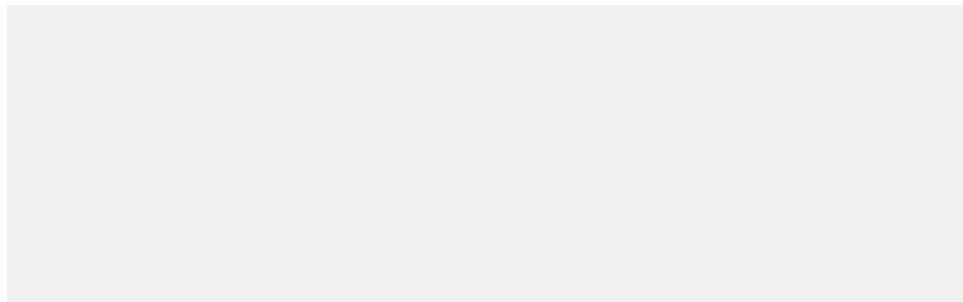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6:17-30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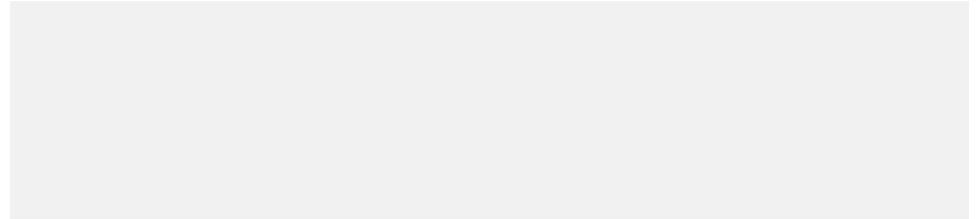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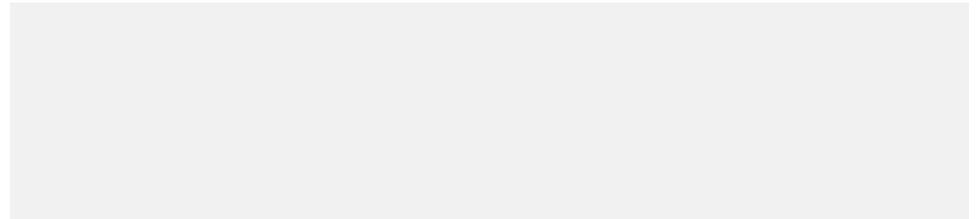
창세기 27장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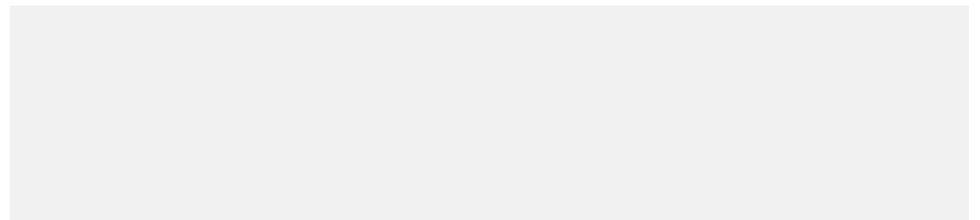
에스더 3장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사도행전 26장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마태복음 26:17-30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17-30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마지막 식사를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공관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체적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주셨을 때를 기념하는, 거룩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유월절을 통해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즉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17절)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약하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때를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7:35-50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8장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에스더 4장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7장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태복음 27:35-50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35-50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것은 당시 행해지던 관례였습니다.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한 말 중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며, 그가 죽고 사흘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할 때 한 말 중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잠잠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45절에 제육시와 제구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세 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표시한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제구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며,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한 진노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으며,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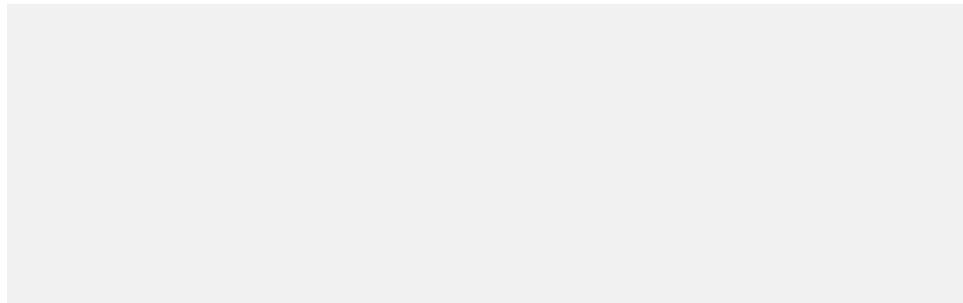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8:1-10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께서 부활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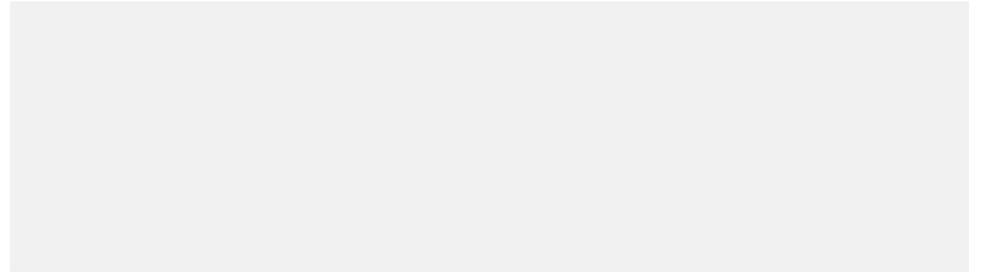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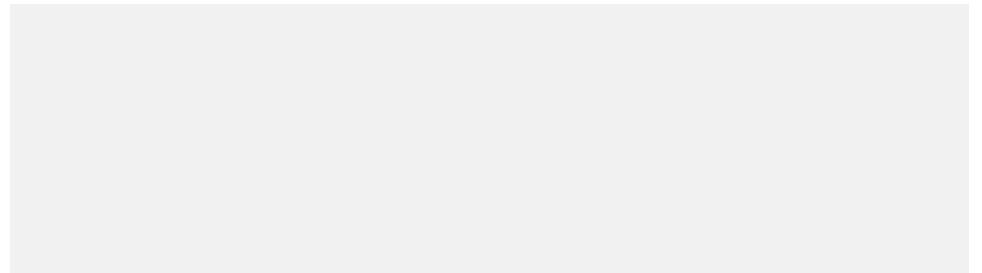
창세기 29장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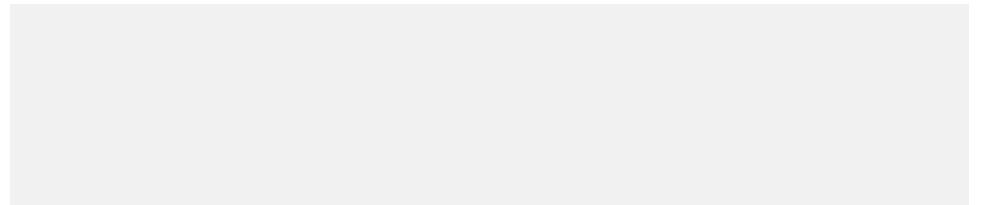
에스더 5장

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8장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태복음 28:1-10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께서 부활하심(1-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천사를 보고 심히 두려워 떨게 되었지만,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당신을 만나게 될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성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나 상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는 빈무덤,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순교의 삶과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모습 등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선교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성경적 의미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을 의미하며 부활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를 향한 형벌대속적 죽음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고,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30:32-43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은 것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에스더 6장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로마서 1장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30:32-43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32-36절)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그동안 라반의 일과 가축 떼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떼와 염소 떼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의 품삯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37-43절)

하나님은 라반과 함께 있는 동안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야곱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매우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43절)

야곱의 삶과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 속에도 고난과 시련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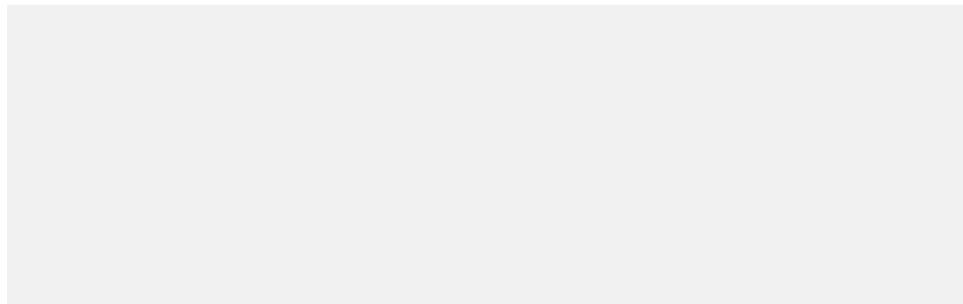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31:43-55 증거를 삼으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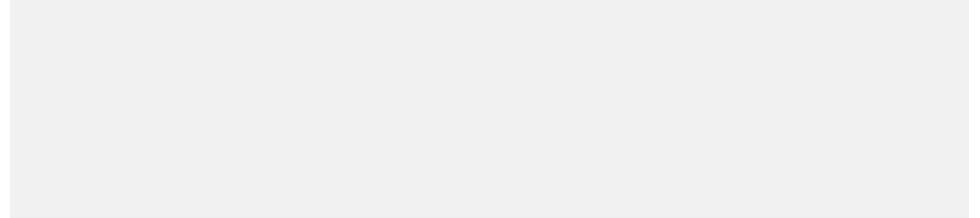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야훼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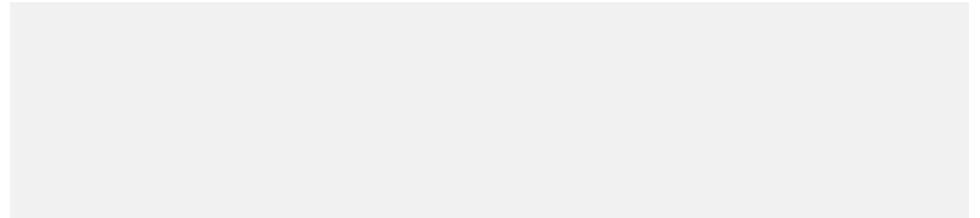
마가복음 2장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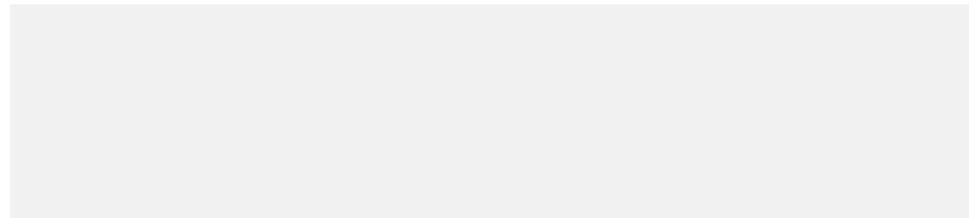
에스더 7장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로마서 2장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읽기 가이드

창세기 31:43-50

증거를 삼으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43-50절)

야곱과 라반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 증거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둘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라며 「미스바」라 하셨습니다.(49절)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50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리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밤을 지내는 관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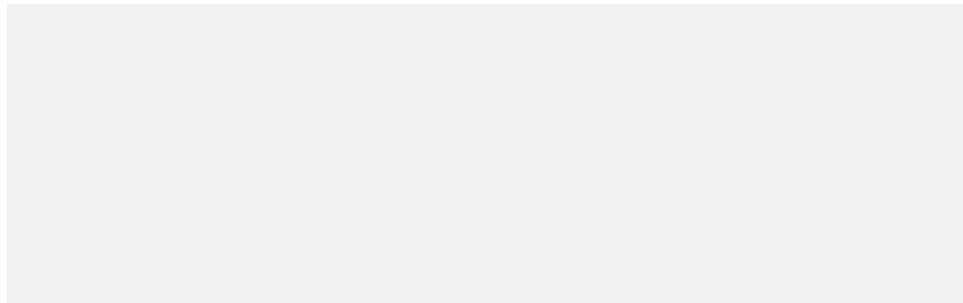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32:22-32 브니엘에서 씨름한 야곱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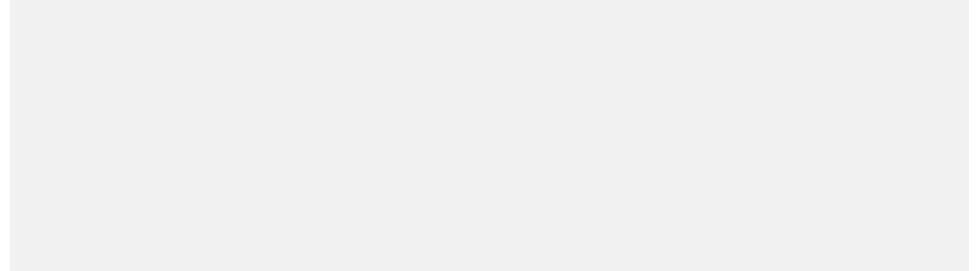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박 나루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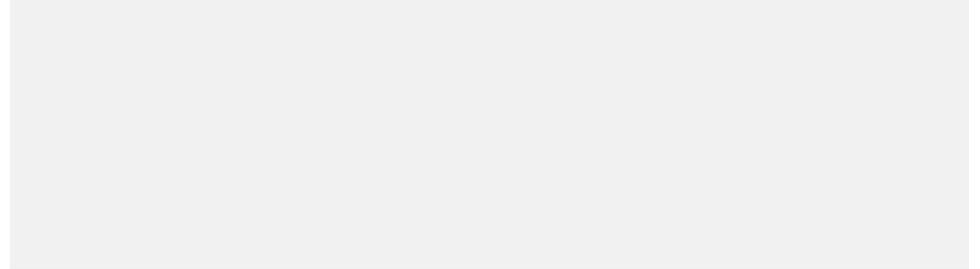
마가복음 3장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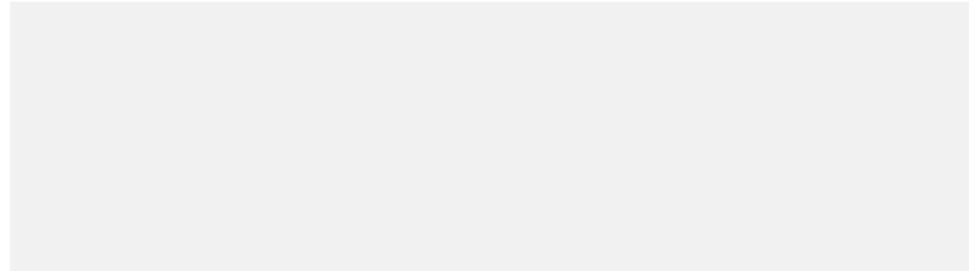
에스더 8장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2:22-32

니엘에서 쓰름한 야곱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22-32절)

야곱이 홀로 남아 쓰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28절) 이는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곧 야곱의 인격과 삶이 바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다' 혹은 '남을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새 이름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실천할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예수 닦기를

🎵 하나님 찬양하기

- 191장(통427) 내가 매일 기쁘게
- 289장(통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견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 곤욕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성령님은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려 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고치거나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나요?(12절)

적용과 나눔 병을 고치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던 여러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눠보세요.

관찰과 묵상

대단한 일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이었나요? (13절) 또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을 행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14절)

적용과 나눔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흘려가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말씀 다지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또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받은 제자들에게 드러났듯 우리들의 삶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 하나님 찬양하기

-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했나요?
(마12:24)

2.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일까요?(마12:28)

말씀 다지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사역속에 귀신들린 자들이 치료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그 병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 어둠과 절망, 질병과 저주에서 풀려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적용과 나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도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말씀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나 혹은 현재 귀신들린 사람들이 치료되는 과정들을 보았다면 어떻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을수 있지만 그중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두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마12:31,32)

2. 심판의 날에 심문을 받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인가요?(마12:36)

적용과 나눔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로 인해 그들이 잘못된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나라에 관련된 말들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과 부자청년

🎵 하나님 찬양하기

-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마태복음 19장 16절~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룩한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청년의 물음에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대답이 아니라, 사랑과 그 실천에 대한 대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대답은 들은 청년은 매우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쉬운 경향이 많이 때문임을 경고해주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 외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로부터 대답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마 19:21-22)

적용과 나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중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왜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마 19:23-24)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면서도 더욱 믿음이 빛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범사에 형통하면서 더욱 믿음이 빛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축복이 함께 빛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혹시 주위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1월 26일
공과

제자들의 배교

🎵 하나님 찬양하기

-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
-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마태복음 26장 69절~7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불잡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재판하였으며, 종교적인 죄목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인들이 증언을 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재림하실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 위해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이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종들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 **적용과 나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믿음 생활을 방해하거나 마음에 고통을 준 일이 있는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관찰과 묵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언장담 했던 베드로가 결국 배신한 이유를 기록해 봅시다.

🗨️ **적용과 나눔** 가룟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마태복음 28:10).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으로

1.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2.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게일 선교사(James S. Gale 1863~1937)(한국 체류 1888~1927)
(한국 이름 : 기일(奇一))(2)

(7)캐나다 YMCA 선교부의 해체로 후원 중단,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임명됨

게일 선교사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려고 했다. 그가 서울을 떠나려는 이유는 서울 거주 선교사 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본다. 당시 초기 북장로교 선교사인 알렌, 언더우드, 헤론 등 세 사람 간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그의 책 <내전(CIVIL WAR)>에서 잘 나타나 있다.

20대 혈기 왕성한 젊은 선교사였던 알렌, 언더우드, 헤론은 제중원 사역을 하는 동안 의견 충돌이 많았고 헤론의 죽음은 과로가 직접적 요인으로 보지만 동료 선교사 마펏은 선교사 간 불신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쇠약을 간접적 요인으로 들고 있다. 헤론이 병으로 눕게 되자 언더우드는 헤론의 병상을 지키며 두 사람은 화해와 용서를 나눴다고 한다. 이국땅에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당시 이 땅의 상황을 감안하면 초기 선교사들의 갈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림 게일 역사관 앞 게일 흉상

그러나 부산에 환자 치료차 온 헤론의 설득으로 인해 게일은 다시 서울로 가게 된다. 1890년 4월 서울에 돌아와서 헤론 집에 거주하면서 마펏이 잠시 운영하는 예수교 학당(언더우드가 설립, 안식년 기간 동안 마펏이 운영)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성서공회 번역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서울로 오게 한 친구 헤론이 함께 거주한 지 2개월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마펏 선교사는 게일의 절친한 친구 헤론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게일 선교사의 공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채워주었다. 1891년 그를 파송한 캐나다 YMCA 선교부의 해체로 인해 후원금이 중단되어 곤란을 겪게 된다. 이때 동료 선교사 마펏의 도움으로 미국 북장로교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마펏 선교사의 도움으로 1891년 8월 31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게일 선교사에게 있어서 미국 북장로회의 마펏 선교사와의 만남은 선교



그림 게일 선교사 역사관 내부

사로서 활동하는데 결정적 만남이 되었다. 게일 선교사는 캐나다 YMCA가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였으나 1897년 5월에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미국 인디애나 주 뉴 알바니 장로교 노회에서 마펏의 주관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조선에 대한 게일 선교사의 열정과 선교의 마음을 보았던 마펏이 아니었다면, 게일 선교사의 한국 활동 역시 초기에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8)게일의 부인 김슨(별명 : 해티), 1908년 소천하여 양화진의 첫 남편 헤론 옆에 묻히다.

부인 김슨(Harriet E. Gibson)(별명:Hatti)은 게일을 도우며 사역하다 결핵을 앓아서 스스로 요양한다. 그 후 1907년 요양지에서 서울에 돌아온 후 다음 해 1908년 사망하여 그녀는 첫 남편인 헤론의 양화진 묘소 옆에 안장되었다. 부인 김슨은 본래 존스보르 의과대학 교수의 딸이었는데 약혼자 헤론이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한다. 김슨(별명:해티)은 반대한다. 김슨은 이렇게 약혼자 헤론에게 말한다. “코리아가 나라 이름이에요? 존의 앞길은 열려 있어요. 존은 그 놀라운 실력을 이 넓은 나라, 이 많은 인구를 위해 쓰여져야 해요. 존은 더 많은 사람, 더 큰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예요” 그러자 존 헤론은 이렇게 기도한다.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리아를 사랑하게 해 주시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김슨(별명 해티)은 조선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한 후 헤론에게 이렇게 말하며 가지 말자고 설득한다. “코리아는 위험하고 미개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가난하고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이고 일본이 노리고 있고 중국도 계속 손을 뻗치고 있고, 러시아도 한몫 보겠다고 하고, 왕실의 권력다툼은 치열은 치열하여 어느 한 곳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가지 말아요”



그림 게일과 마펏 선교사의 전도여행

존 헤론은 김슨(별명 :해티)을 설득하여 결혼하고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미국 대륙을 한 달 넘게 횡단하고, 태평양을 배로 횡단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일본에 도착한다. 임신한 부인은 배멀미로 초죽음이 되다시피 했다. 일본에서 배로 조선에 오는데 3일이 걸렸다. 3일 내내 부인은 임신한 몸으로 배멀미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 남편 헤론이 조선에 온지 5년 만에 두 딸을 남기고 소천한다. 남한산성에서 휴가 중이었는데 부인과 딸은 남한산성 휴양지에 남기고 제중

원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먼저 와서 제중원에서 진료하다가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이질로 사망한다. 죽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조선을 떠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긴채...

헤론의 절친한 친구인 게일과 김슨(별명 해티)은 1892년에 결혼한 후 김슨 여사는 1908년에 결핵으로 사망하여 첫 남편 헤론 옆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이 김슨(별명 해티)여사의 희생을 보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러지기까지 특히 수많은 사모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한다.

(9)게일은 원산에 정착하여 선교 활동과 출판 활동 계속

1892년부터 게일 선교사는 원산에 정착하여 선교 활동과 성서번역 및 사전편찬을 비롯한 출판 활동에 집중했다. 그의 곁에는 가족과 함께 그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함께 했던 이창직, 그리고 원산에서 만난 고찬익 등 많은 조선인 조력자들이 있었다. 게일 선교사의 특징 중의 하나가 다른 어떤 선교사보다 한국인 동역자가 많았다. 이창직(평생 동반자, 한국어 선생), 고찬익(연동교회 초대 장로, 천민 출신) 등 한국인 동역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게일은 한국인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선교사로 평가받고 있다.

1898년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과 푸트(William R. Foote)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장로회가 원산에 선교지부를 개설하자, 미국장로교 선교지부에 속에 있던 게일은 1899년 9월 9일 서울 연못골, 지금의 연동으로 이주했다.

(10)연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898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부임해서 원산을 선교지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원산을 양보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연동교회에 시무하게 된다. 1900년 5월부터 담임목사가 되어 한국을 떠날 때까지 27년간 이곳에서 사역하였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며 예화나 일화가 없는 성경 강해설교였다고 전해진다. 이상재 선생은 <길의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대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얻게 하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천민 출신을 장로로 장립하여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였다. 1907년 세 번째 천민 출신 장로 장립에 양반들이 반대하여 결국 교회가 분리되는 일

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연동교회는 상민과 천민이 살던 연못골에 설립한 교회로서, 1894년

그레함 리와 기포드가 설립하였다. 그 후 그레함 리가 평양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기포드가 전염병으로 소천한 후 게일이 담임목사로서 사역하였다.



게일 선교사와 그의 가족

그는 연동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기간에도 사회의 제반분야에 관여해 활동했으며, 벵커(Dalziel A. Bunker)선교사와 함께 이상재, 이승만 등 당시 개화파 지식인이 수감되어 있던 한성감옥에 근대서적, 성경, 기독교서적을 보급하고 교육하여 지식인들의 개종을 이끌었다. 이승만은 1904년 출옥 후 게일이 시무하는 연동교회에 출석하였고, 이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도록 게일이 추천서를 주면서 적극 협력하였다. 게일은 이승만의 스승이자 멘토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있던 기독교가 지식인 계층으로 확대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기독교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연동교회를 섬기는 동안 교육을 중시하여 연동 소학교와 예수교 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의 초대 회장,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노회장, 평양신학교 교수, 연희전문학교 이사, 피어슨기념성서학원 원장 등 그가 맡았던 직책들과 책임은 초기 한국 선교에서 게일 선교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927년 미국 선교부와의 계약 기간을 1년 앞두고 연동교회를 사임하며 게일은 “내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한국을.....”이라는 말을 남기고 한국에서의 기나긴 사역을 정리했다.(게일 선교사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은상철 장로)

“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